

출판시장 외연의 확장만큼 내실이 뒤따라야 할 것

세월을 이기는 경제경영서의 스테디셀러를 꿈꾸며

작년 8월부터 시작한 <파이낸셜 뉴스>의 '저자와의 만남' 코너를 위해 주로 경제경영서 및 실용서를 저술한 국내 저자들을 매주 1명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마케팅, 디자인, 재테크, 경제학, 경영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하다보니 국내 경제경영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글 _ 최종욱 (북코스모스 대표)

외연의 확장은 고무적인 일

금년부터 또한 <조선일보>에 매월 한 번씩 해외 주요 경제경영서를 소개하는 칼럼을 쓰다보니 자연스럽게 국내외 경제경영서를 자주 접하게 되고 종종 해외 경제경영서를 기준으로 국내 경제경영서들을 비교, 평가해보게 되었다. 경제경영서들을 보면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연구 조사를 통해 새로운 이론 및 개념을 소개하거나 기존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검증하는 도서.

둘째, 뛰어난 통찰력으로 미래의 흐름을 읽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거나 현재 당면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도서.

셋째, 실용서를 포함해 주로 경영 일반 또는 리더십, 마케팅, 자기계발, 재테크 등에 있어서 효과적인 노하우를 담고 있는 도서.

요즈음 보면 7~8년 전에 비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내 작가들의 책이 많이 출간되고 있고 특히 경제경영서나 실용서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 무척 고무적이다. 과거에는 경제경영서의 경우 상당수가 해외번역서들이었지만 지금은 해외번역서들보다 오히려 국내 저자들의 저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교수나 전업 작가보다는 기업체의 CEO나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나 관심 분야를 깊이 연구하여 책으로 출간하고 있고, 이러한 책들이 전업 작가들의 책보다 더 좋은 평을 받고 독자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은 출판계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길게 공들인 역작은 태부족

글쓰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

해 함량 미달의 내용을 그럴 듯한 제목으로 포장, 출간해 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여기저기서 퍼온 글들을 짜깁기하듯 엮어내 속성으로 책을 만들어내는 저자들도 적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만난 몇몇 저자들은 분명 자신이 쓴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책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는 질문을 하면 내공이 깊지 않은 탓인지 두루뭉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비록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경제경영서들 역시 저자에 따라 함량 미달의 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해외 경제경영서들의 경우 일단 국내 출판사들이 아마존 판매 순위가 높은 베스트셀러나 기존의 유명작가들의 저서에 초점을 맞추고, 신진 작가의 도서라할지라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출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작가의 저서보다는 내용이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양쪽의 경제경영서를 살펴보면서 아무래도 국내 경제경영서들의 내용이 얇고 가볍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해외 경제경영서들의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넘게 연구 조사한 결과물이 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공을 들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역작이 드물다.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경영서들의 수명이 해외도서에 비해 매우 짧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완성도와 통찰력에서 한발 앞선 외서들

짐 콜린스의 역작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는 출간된 지 6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마존 베스트셀러 30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 번역 출간된 《블루프린트 컴퍼니》 같은 경우 저자는 1980년

이후 주식시장에 상장한 총 7,454개의 미국 기업들 가운데 매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한 387개 기업을 선정하여 이 기업들을 블루프린트 기업으로 정의하고, 3년에 걸쳐 이 기업들을 철저하게 연구 분석하여 블루프린트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7가지 공통된 법칙을 추출해내고 이 법칙들을 실제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아직 출간되지 않은 《Leadership Blind Spots》의 경우 저자는 21명의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학습 일기장을 기록하게 하고 수차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맹점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맹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경제경영서들 중에는 탁월한 통찰력에서 나오는 도서들이 많다. 우선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부의 미래》 《세계는 평평하다》 《마인드 세트》에서 엘빈 토플러와 토머스 프리드먼, 그리고 존 나이스비트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미래의 흐름을 알려주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통찰력 깊은 도서를 국내 경제경영서들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소위 경제경영서로 분류되고 있는 국내 저자들의 저서들 중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도서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세 번째 부류인 테크, 리더십,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달하는 실용서에 가까운 도서들이다. 물론 이 부류의 도서들도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좀더 통찰력 깊고, 완성도 높은 역작이 탄생되어 6년이 지나도록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아울러 해외에서까지 번역 출간될 수 있기를 바란다. **◆◆**

